

KOKKOS 10

OCT 2024 VOL. 270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최정권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우리 대학이 5일 교육부의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대학의 정보보호 평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우수 성과를 이뤘던 전산지원팀의 주역 김덕원 팀장(왼쪽)과 김덕현 과장 [관련 기사 2면]

2022년 50점에서, 올해 84.5점으로 꺾충

교육부, 2024년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발표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나'그룹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나'그룹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교육부 산하 대학(고등교육기관 포함) 388개 중 전년도 연간 세입액이 150억 이상 - 900억 미만, 재학생 수가 1,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인 대학(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25일 주요 보직자 회의에서 발표된 우리 대학의 최종결과는 84.5점으로 '우수(B)' 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는 2022년도 50점에서 34.5점이나 상승한 성적이다. 진단 항목별로 보면 1.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은 25점(만점 29점, B등급) 2.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27점(만점 31점, B등급) 3. 침해사고 대책 수립 및 운영 26점(만점 33점, C등급) 4. 전자서명인증 업무 관리 7점(만점 7점, A등급) 5. 개인정보 유출 개선 조치 항목에는 감점 요소가 없어 A등급을 받았다. 최근 5년간의 개인정보 수준 진단 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 대학은 2022년에 50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개선 조치 이행 및 미흡한 진단 항목을 집중 관리한 결과 2023년에는 17점이 향상하였고, 2024년에는 또 17.5점이 상승, 2년 만에 34.5점을 올려 올해 84.5점을 받았다. 상승 요인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문서의 전자문서화 등 법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증빙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산지원팀 김덕원 팀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며 "학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은 "인력, 장비 등 모든 여건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사명을 완수하여 준 전산지원팀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학교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투자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준진단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0.5	80	50	67	84.5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3~6)

김현광 (성서학과 교수)



사도바울은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험을 당했으며 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4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때도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이 넘치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 자신이 위로자가 되어 다른 사람도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극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오늘 어떤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졸업예정자 초청 총장 리셉션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킬 주님의 인재로 거듭나야”

복음 전도자로서 소명을 다짐한 시간

2024년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리셉션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개회 및 케익커팅과 식사, 2부 후배들의 특송, 학과장 인사말, 자유발언, 간증, 총장의 권면, 성서인의 다짐 등으로 이어졌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에서 모든 학과에 대해, “학우들이 먼 훗날 본교 출신으로 후배를 섬기는 자랑스러운 선배 교수의 길을 향해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해 줄 것”을 강력히 권하였다.

학과 후배들은 선배의 졸업을 축하하는 특별 찬양으로 응원하며 리셉션장의 분위기를 띄웠다. 졸업예정자들은 지난 4년간 헌신된 교수님들 덕분에 신앙과 학문이 향상됐고 동료와 함께여서 복음전도자로 성장하였다고 간증을 전했다.

학과별 권면사는 다음과 같다.

◆ 성서학과(23일)

여러분은 영적 싸움의 최전선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는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권능과 영적, 육적인 믿음까지 공급해 주셨다. 권능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 영보학과(24일)

하나님이 교사로 부른 건 아이들의 영혼과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라는 데 있다. 귀한 영혼들의 첫 번째 사회 생활을 사랑과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부여해 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보인 되길 바란다.

◆ 컴소학과(25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 그 너머까지 개입하여 백성을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SW, AI

의 거대한 도구 개발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며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킬 주님의 인재로 거듭나야 한다.

◆ 사회복지학과(26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애나 비참함에 놓인 낮은 자를 위로하고 복음을 알리도록 사명자로 부르셨다. 썩어가는 시대에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사복인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 간호학과(27일)

여러분은 간호사의 직업적 가치를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다룬다. 생사(生死)가 하나님에게서 오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간다는 걸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말했다.



성서학과 학우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크리스천 데이 10월 마지막 주간에

기념예배, 장터 및 게스트 초청 무대
체육대회는 독섬 한강공원에서 9개 종목

2024년 크리스천 데이가 제 40대 다움 총학생회(회장 채경훈) 주관으로 10월 31일~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청년세대에게 종교개혁(507주년)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인류 사랑 정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크리스천 문화 확산의 목적을 담고 있다. 행사는 첫날 크리스천 데이와 이튿날 체육대회로 각각 진행된다.

크리스천 데이 _ 주제 '오직' / 10월 31일

첫날, 각종 부스 운영 및 찬양대회, 아티스트 무대로 이어지는데 먼저 강규성 교목실장의 기념 예배 말씀과 함께 행사가 시작된다. 이에 앞서 만나보리와 잔디밭 광장 부스에서는 학회와 전도반 동아리 및 유학생 그룹이 준비한 활동 소개, 홍보 및 식음료 판매와 외부 업체의 프리마켓 장터도 펼쳐진다. 오후에는 로고스홀에서 숨겨진 끼와 재능을 드러낼 찬양&워십대회 '워킹'과 '아티스트 초청' 무대가 청춘의 멋과 낭만을 충족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성서학과 주최의 성경 암송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체육대회 _ 주제 '천진난만' / 11월 1일

체육대회는 이튿날 독섬 한강공원에서 흑백팀으로 펼쳐진다. 9개 종목을 놓고 흑팀(성서, 영보)과 백팀(사복, 컴소, 간호) 대결이 이어지는데 농구, 발야구, 계주 아이템 전이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점심 도시락이 제공되며 오후에 줄다리기, 피구, 족구, 단체줄넘기 및 축구와 혼성계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경기 내내 치열한 학과 응원전, 이벤트성 게임 및 경품추첨이 있다.

2025 학년도 수시 모집 5.03:1

간호학과 13.13:1 로 가장 높아

우리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 1048명(모집인원 218명)이 지원하여 5.0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8.02:1에 비해 -2.99(531명 감소) 내려간 낮은 경쟁률이다.

학과 별 경쟁은 간호학도가 30명 모집에 394명이 접수, 13.13:1로 가장 높다. 사회복지학과는 29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하며 5.62:1, 영보학과와 시융합학부는 나란히 3.90:1로 동률을 보였고 성서학과는 1.60:1을 기록했다. 유형별 경쟁에서는 간호학과의 교과성적우수자(16.80:1)와 목회자추천(16:00:1) 전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수시 모집은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하락하였다. 입학관리팀(팀장 신지수)은 학령인구 감소와 신설 시융합학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원을 주저하게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면접은 10월 1일과 2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5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졸업고사 65명 (67%) 합격

2024년 2학기 영어 졸업 고사가 27일 오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106명의 신청자 중에 97명이 응시(91.5%), 이 가운데 65명이 합격(67%)의 기쁨을 누렸다. 최근 3년간 합격률은 2022년 80%, 2023년 77%였고 올해 67%에 머물며 다소 하락하였다.

학년별 합격자는 2학년 39명 중에서 27명(69%), 3학년은 31명 응시, 21명(67%)이, 4학년은 19명이 응시하고 13명(68%), 초과학기자 4명(100%)도 패스하며 짐을 덜었다.

2024 년 사학기관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결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평가

우리 대학은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수탁 시행)가 실시한 2024년도 사학 기관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태점검은 9월 9일~12일까지 나흘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점검단은 7명으로 공인회계사 4명 사학진흥재단 선임행정관 1명, 대학 파견직원 2명이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점은 비교적 경미한 회계 처리상의 위반 사례였는데 법인회계 8건(실태점검 5건, 회계 감리 3건), 대학회계 15건(실태점검 6건, 회계 감리 9건), 도합 23건이 지적되었다.

법인 회계 부문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정수익률(3.71% 약 4억2천만원)을 충족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1.4%(약 1억6천만 원)이다. 점검단원들은 우리 대학의 수탁기관인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대학 예산과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대학은 월계복지관이 수탁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별개의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예산 규모(약 40억)나 직원 (약 30여명)을 대학이 감당하는 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교 회계 부문에서는 15건 모두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기금관리 위원회의 위원 배분이 규정과 맞지 않다’ ‘하이패스 요금을 차량 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였다’ 등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회계 감리가 법인과 학교의 업무를 재점검 받는 기회가 되었고 관계자들은 완벽한 행정업무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일립생활관 특별 새벽 예배 23 일 ~27 일까지

이정선 목사 인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정선 목사가 일립생활관 학우를 대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2024년 2학기 일립생활관(관장 김웅기) 특별 새벽 예배가 23~27일까지 진행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를 주제로 이정선 목사(어린양교회 담임, 시온의 대로 대표)가 ‘빛의 자녀’(엡 5:8~14)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그 빛은 복음을 신뢰하면서 특정 공간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학우 여러분은 기숙사라는 한 공간 안에서 착한 행실로 서로에게 선한 등불을 비춰 줄 때 현재와 미래도 환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곳에서 빛을 발하겠다는 강한 용기로 성서대 전체와 세상 그 너머까지 영광을 올리는 빛의 형제자매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전하였다.

학우들은 대표 기도회와 특별찬양팀을 결성해 예배 순서를 감당하였고 기간 중 매일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장 초청 리셉션에서의 자유 발언

김진 (사복4)

‘왜 이토록
근사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
줬을까?’

안녕하십니까?

리셉션에 초대해 주신 총장님 그리고 전공학문과 신앙, 삶에 의미를 일깨워 주신 교수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
니다.

졸업을 앞둔 현재 저는 우리 대학교가 정말 좋습니다. 일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또 다
른 누군가는 학교에 부정적 시각으로 ‘왜’라는 물음과 함께 답을 찾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의 여러 장점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강점관점(強點觀點)의 시각으로 이 학교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매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기반한 교육과정, 그 안에서 서로가 고차원적인 도덕성과 철
학을 공유하고 배우며 열정을 갖게 한 수준 높은 친구들, 그리고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선후배와
의 관계까지….

우리 학교는 작고 아담합니다. 작은 교정은 친구, 선·후배와 잦은 대화로 서로를 친근하게 바
라볼 아늑한 공간이 되어 줍니다. 만나보리 광장 벤치에 앉아 바라본 푸른 하늘과 햇살은 특별
했고 교정에 흩날린 순백의 벚꽃 앞에서 영화 속 장면이 부럽지 않았던 봄날의 순간도. 원형 벤
치를 따라 들어선 노란 국화도 좋았고 단풍잎 가득한 정원을 품은 복음관, 밀알관 앞을 걷다가
감수성에 젖어 들던 10월의 끝자락. 이토록 아름다운 학교 안에서 나는 20대의 절반가량을 보
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안에 촘촘히 자리한 좋은 친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토록 근
사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 줬을까?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정든 학교를 떠나 각자 치열한 삶을 살아가겠지요. 사회복지 실천 현
장에서 땀 흘리고 누군가는 학문을 탐구할 것이고,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여러 문제로 고난이 닥쳐올 때 성서대학교와 나누었던 여러 기
억 속에서 삶을 좀더 아름답고 소중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무의미하지 않았
고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했다는 고백을 통해 다시 힘차게 도약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헌신, 봉사, 사랑의 장을 말없이 이끌고 실천해 준 성서
공동체의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헤세드 (학생식당) 이용 시 식사비 1 천 원 보조

재학생 복지, 음식맛과 건강
가성비까지 높아 환영

13일부터 재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헤세드(학생식당) 이용 시 1천 원의 식사비 보조제도가 시행 중이다.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부, 대학원) 식권 1매당 6천 원이 아닌 5천 원으로 식사할 수 있다.

학우들은 학교의 식사비 1천 원 보조 소식에 환영 일색이다. 헤세드를 매주 2~3회 이용한다는 박이삭(성서1) 학우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든다. 맛도 좋았는데 이전 가성비까지 갖추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른 학우도 “배달 음식은 질리는 느낌이 든다. 헤세드가 건강식에 분위기와 맛까지 좋는데 이제는 5천 원이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 지원으로 시행된 700원의 사랑 ‘성서 만나’ 프로젝트는 25일까지 총 101명(일일 평균 7.8명)의 학우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학우에게 끼당 700원의 ‘성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된 하늘의 양식 ‘만나’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공동체 안에 전하고 있다.

헤세드 학생 식당 벽면 미술 갤러리가 되다

우아한 식당 분위기, 화가는 최정권 총장



헤세드 (학생식당) 벽면을 따라 최정권 총장이 그린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다.

학생 식당 헤세드 안쪽과 측면 벽면을 따라 그림 14점이 전시되어 식당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은 캔버스가 아닌 노출 벽면 위에 그려 있고 우리 주변의 산과 강을 묘사한 산수화가 대부분이다. 작품(95*95)은 나무 프레임으로 구분돼 작은 갤러리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그림의 대부분을 최정권 총장이 그렸다.

연초에 학생 식당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맛있는 벽면에 학우들의 낙서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의 열정을 담아내기를 바랬다. 그러나 공간은 빈 여백이 지속됐고 이를 지켜본 최정권 총장이 결국 그림을 한 칸씩 그리게 됐다.

최 총장의 미적 감각은 코코스 ‘온유한 갤러리’(4년간 집필)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서 17년간 이민 목회에 임하며 틈나는 대로 주변의 수많은 미술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면서 안목을 키워 왔다. 이 과정에서 미학과 관련된 학업과 도서, 자료 등을 섭렵하며 실전 경험까지 쌓아 자신만의 작가관을 형성해 왔다고 한다. 그는 힘든 이민 목회 현장에서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작품 감상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문 경비실 앞 외부 음식 배달존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위해



정문 근처에 자리한 배달존 배너 광고판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유지를 위해 정문 경비실 앞에 배달존이 운영된다. 외부 음식을 공급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교내를 주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소음에 의한 수업환경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부 업체의 교내 배달 시간대는 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전후에 집중되는데 이 시간대에는 학우들의 교내 이동도 활발한 시간이다.

교학팀(팀장 유미나)에서는 학우들이 외부 업체에 음식 주문 시 ‘정문 경비실 앞 배달존에서 수령하겠다’는 메모로 주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설팀은 배달존에 음식 보관함을 마련, 위생과 편리성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의 새 '슬로건' 공모 정체성과 비전을 매력적으로 담아 내길



슬로건 입간판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이미지, 비전을 매력적으로 함축시켜 담아낼 새 슬로건을 오는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전 참여 대상은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및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모든 지역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 공모 주제

- * 정체성을 잘 표현되면서 무겁지 않을 것
- * 대화형에 스토리가 있고 용어는 시대적이면서 성경적일 것
- * 발랄하면서 발음이 쉬울 것

◆ 접수 방법

- *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한국성서대학교 슬로건 공모전에 접속, 신청서와 서류 작성 및 이메일(Kbuplan@bible.ac.kr)에 제출

◆ 심사 및 시상내역

- * 심사기준: 공모의 취지 및 내용의 참신성, 적절성, 전달성을 평가
- * 시상내역: 1편, 200,000원과 상장 수여

◆ 슬로건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 * 문의전화 기획팀 / 02-950-4329

한국성서선교회 목회자 수련회 금강산 콘도에서

주제 '쉽, 기쁨, 회복'
충전과 회복의 시간

한국성서선교회(이사장 현희철 목사, 중앙성서교회 담임)가 지난 9월 9일 ~10일까지 강원도 고성 금강산 콘도에서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쉽, 기쁨, 회복'

개회 예배에서 현희철 목사가 "목양을 위해 힘써 달려온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더해지고 높이 비상하는 반전을 보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전했다.

장재기 목사는 「따라하는 기도」의 특강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긍정의 언어로 입술을 열어 일상에서 간구하는 실천의 사역자가 되자"고 말하였다. 김현정(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MBTI를 활용한 성격 유형과 사랑의 언어로 힐링 시간을 가졌다. 김정규(삼일성서교회 담임) 목사가 가스펠 콘서트를 펼쳐 은혜로움을 더했고 레크리에이션과 친교의 시간에 목회 경험 나눔 및 비전을 공유하며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35명의 목회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최정권 총장

10월입니다



세계를 향한 뜨거운 한류 열풍에 대해 전문적 분석이 아니지만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류 열풍에 대한 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류가 어느 한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에는 처음부터 좋은 영화와 콘텐츠는 늘 존재해 왔는데 이제야 세계가 그 가치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 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겸손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여배우의 긍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는 이유는 한국성서대학의 위상과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가치와 그 가치를 바탕으로 7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복음 전도자를 각 분야에 배출해 온 대학입니다. 이 과정에 큰 교단의 뒷배경이 된 일도 없고 어느 유명인이 우리 대학을 나서서 도운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권의 힘도 우리를 밀어준 일도 없지만 우리 대학의 가치에 동의하고 자기 자녀를 보내준 동문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보내준 귀한 기부금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늘 쓰는 용어대로 우리는 세속에 굴하거나 머리 숙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가치를 이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감을 지고 있는 총장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가치를 잘 포장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지키고 우리 대학이 얼마나 귀한 대학인가를 알려 주고 싶은 겁니다.

총장의 편지

대학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전철을 타고 오는 지인들에게 중계역, 한국 성서대학 1번 출구로 나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느꼈던 작은 긍지. 학교에 들어와 교정에서면 그들이 봤을 아름다운 교정과 채플의 찬송, 학생들의 힘찬 발걸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자랑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겠지만 총장인 저는 우리 대학처럼 아름답고 정겨운 캠퍼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계절 모두 아름다우나 특히 가을이 더 어울리는 학교입니다. 건물의 벽돌색은 커피를 물에 풀어 놓은 것 같고 ‘만나보리’ 광장으로 넓게 퍼진 녹색 잔디밭은 그 커피색의 건물까지 더욱 아름답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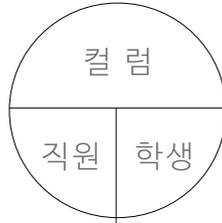
수시 면접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건물에 붙어 있는 로고를 보고 사진 찍고 학교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 사진들이 10월 청명한 하늘과 함께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의 모습으로...

글을 쓰면서 받은 감사한 소식은 이번 수시 면접 응시율이 무려 91.7% 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이 왔을 뿐 아니라 면접하신 교수님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해 보다 좋은 인재가 왔고 그들이 학교에 대해 잘 알아보고 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미래에 인재인 믿음의 학생들이 정착되고 믿음 없는 학생들이 와서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로 각 분야에 보내는 학교가 될 수 있길...

이 일을 위해 희미한 구름을 뚫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큰 비를 내려 주실 줄 알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갈 겁니다. 홍보의 구름과 이공계 강화라는 구름을 쫓아서...



신재윤 계장(사무관리팀)



황미숙(성서2)

특별한 가족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아내와 연애하며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 고양이 카페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에 가면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다가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보고 싶어 3개월 된 아비시니안 루디를 입양하였다.

아비시니안을 검색해 보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나오는 고양이로 당시 파라오의 고양이였을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는 에티오피아에서 자연발생적인 품종으로 1868년 전쟁 중 영국군에 의해 미국과 영국 등지로 전해졌고 당시 에티오피아가 아비시니아(Abyssinia)라고 불려서 '아비시니안(Abyssinian)'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고양이 이름은 '루아'로 온순하고 귀여운 개냥이(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를 말함)이다. 집에 오면 루아는 반가운 나머지 항상 머리를 내 발에 비비며 인사한다. 밥주고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주며 보는 모습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힘들었던 하루를 잊게 하는 치유의 힘이 되곤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혹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고양이를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우선 고양이는 깨끗하고 독립적이라 주인의 시간과 관심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혼자 잘 지내기 때문에 쉽게 돌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절대 방바닥에 실수하지 않고 꼭 모래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 처리 한다. 지금도 신기한 건 단 한 번도 방바닥에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이 녀석도 옆에서 함께 봐주기도 한다. 잠을 잘 때도 꼭 침대 발 밑에서 잔다. 이른 아침이 되면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머리를 들이밀고 깨운다. 아침밥 달라는 몸부림이다. 알람 시계가 없어도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반대로 집안에 털이 빠진다는 분명한 단점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고양이와 함께하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본다.

기회 된다면 고양이를 특별한 가족으로 입양해 보길 ...

쾌락, 야심, 호기심을 넘어서는 삶

'교회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참된 종교」를 읽으며 '쾌락, 야심, 호기심'의 세 단어가 눈에 띄었다. 인간 본성과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역사를 창출케 한다는 시각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먼저, '쾌락'은 우리를 즉각적인 즐거움으로 이끌고, 그 속에서 삶의 활기를 느끼게 한다.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할 때, 쾌락을 느낀다. 나아가 스트레스 해소와 삶 전체에 왕성한 활력을 불러온다. 그러나 이 쾌락이 지나치면 중독의 늪에 빠지거나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쾌락은 자아를 잃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며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야심'은 우리를 목표의 길로 이끄는 불꽃이다. 성공과 인정을 갈망하며, 우리는 다양한 학문과 비즈니스 등의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열망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지나친 야망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니 야망의 불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 '호기심'은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과학과 예술의 발전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질문에 답을 찾는 노력과 시간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시킨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은 무모한 도전으로 이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릇된 길로 빠질 경우, 우리의 삶은 불법적인 행동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쾌락, 야심, 호기심'은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지만, 적절한 통제를 잃는다면 개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와 타인에게 유익한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본능을 넘어서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선을 추구할 가치 있는 삶의 길,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자문해 본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얼마 전, 아들에게 제가 평소 사용하던 맥북 노트북을 쓰라고 주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맥북을 갖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요. 사실 그 노트북은 제가 평소 즐겨 사용해 왔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맥북을 쓰라고 주고 대신 저는 구형 노트북으로 대체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나 기도하는 제목이 분명 우리의 삶에 유익하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아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며,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시길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가족이 서로의 기도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사랑방에서 기도 시간을 나누고 서로 점검합니다. 둘째, 기도문을 기록합니다. 「따라 하는 기도」 책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지속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셋째, 틈 나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혼자 지속하기는 힘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23

가을 어법 나태주

가을은 우리에게
경어를 권장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드셨겠어요
짐까지 무겁게 들고 오셨군요

가을은 우리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허락한다

그래, 그래, 애썼구나
잘 참아줘서 고맙단다
이제 좀 쉬어라
쉬어야 다시 또 떠날 수 있지

가을의 햇빛과 바람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화해를 요구한다
낙엽들도 그렇게 한다.



<https://blog.naver.com/ssuss329/223568468545>

가을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드셨겠어요. 짐까지 무겁게 들고 오셨군요.”

가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래, 그래, 애썼구나. 잘 참아줘서 고맙단다. 이제 좀 쉬어라. 쉬어야 다시 또 떠날 수 있지.”

오늘, 우리도, 가을의 마음을 담아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애썼다. 잘 참아줘서 고맙다.”

담벼락 낙서

최정권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9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생각해 본 어린 시절 집 골목은 유난히 회색이 많았습니다. 좁고 긴 골목길을 따라 붙은 종이 전단지와 낙서 그리고 시멘트 블록을 쌓아 만든 벽과 그 블록 사이에 공간을 다시 시멘트로 발라 놓았고 담벼락 위로는 뾰족한 유리 조각들을 촘촘히 박아 놓았습니다. 청계천이 보이던 골목길에서 쌓이고 쌓인 인연들이 그림으로 나왔나 봅니다.

헤세드 학생 식당 12 번째 그림은 '담벼락 낙서' 입니다. 길에 앉아 울던 여자아이는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나 뒤에 숨어 얼굴을 내밀고 있던 아이의 놀란 두 눈이 보입니다. 담벼락에 거꾸로 매달려 서 있는 아이들, 삶에 지친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과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쁘게 골목을 벗어나던 모녀의 종종 걸음의 모습도 그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만난뱅크시의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나 바스키아의 낙서에 드러난 정체성은 아니지만 가난했던 6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지냈던 어린시절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이 '담벼락 낙서' 를 그리던 날은 폭염에 유난히 땀이 많이 흘렸는데 아마 몸이 그때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나 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내내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전문가가 보면 웃어요"어쩌면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없습니다. 다만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던데 그 시절로 돌아가 그 골목길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개원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개원 24 주년

2일, 대학어린이집이 개원 24주년을 맞았다. 지난 24년간 지역의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왔는데 하루 전 영유아와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다. 교사의 감사기도와 오종철 목사의 '하나님께 감사해요'(시136:1)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다. 오 목사는 "이 땅에 한국성서대학교와 어린이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을 올리며 각자의 소명에 더욱 충성을 보이는 주의 동역자가 될 것"을 말씀하였다. 7세 소망반 유아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라는 특별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 개원의 의미를 높여 주었다. 교직원들은 개원 24주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 전파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했다. [은혜반 문채림 교사]

장애 아동을 둔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만드는 세상

장애 아동을 둔 아버지들이 모여 양육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며 성장을 위해 결성한 '우리가 만드는 세상(우만세)'의 모임을 갖는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총 15회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임 결성의 시작은 발달장애 아동의 엄마 자조 모임 '휴(休)야호'에서 출발되었고, 당시 4가족의 부모와 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 총 13명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우만세'는 장애 아동 부모들이 함께 양육 과정을 통해 힘을 충전하며 어머니에게는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쉬을,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서로 즐기는 시간으로 작용한다. 활동은 플로깅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가족간의 연대감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목표 하고 있다. [이강희 사회복지사]

영유아들이 학부모와 송편 만들기를 하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송편 만들기

12일,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고,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추석을 맞아 송편빚기를 진행하였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함께 진행된 행사에 많은 학부모가 참여해 주었다. 직접 송편을 빚는 방법과 필요한 재료까지 잘 설명해 주어 즐거움까지 덩어리 더해진 풍성한 자리였다. 쌀가루에 더운물로 반죽한 익반죽을 떼어 조물조물 송편을 손으로 빚자 마침내 적당한 질감을 가진 반죽이 완성됐다. 각자가 깨소를 넣고 적당한 크기의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 찜기에 찌고 뜸 들인 후 맛을 보았다. 영유아들은 직접 만든 송편을 맛보며 '맛있다는 표현과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다. [나리반 유현진 교사]

교회창립기념부흥회 홍보 포스터

기도는 축복입니다

9/19(목)	오후 8:00	마태복음 6장 9-13절	따라 하는 기도
9/20(금)	오전 5:10	마가복음 11장 24절	응답 받는 기도
	오후 8:00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9/21(토)	오전 5:10	요한복음 14장 12-14절	예수님을 따라 하는 기도
	오후 8:00	로마서 8장 34절	세상을 바꾸는 기도

날짜 | 2024. 9.19-21.(목-토)

장소 | 성서대학교회 로고스홀

강사 | 장재기 목사

|발로잉 미니스트리 대표-따라하는 기도 지자|
|유튜브 채널 장재기 TV 운영(7월 4 24일 밤)|

성서대학교회

창립 기념 주일

9월 8일,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뜻깊은 기념 주일을 모든 성도와 나누기 위해 학교 잔디밭 일원에서 뷔페와 바비큐로 오찬의 기쁨을 나눴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며 우리 대학에 배부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추석 연휴 후 19일~21일까지 창립 기념부흥회를 진행하였다. 강사는 '따라하는 기도'로 유명한 장재기 목사가 사흘간 기도의 능력과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게 해 주었다. 성서대학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의 놀라움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종철 목사]

유아가 한복을 입고 한가위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계백영민

즐거운 추석 행사

12일, 한가위 '추석 행사'가 이뤄졌다.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행사는 '약과롱 만들기'와 '전통 놀이가 준비되었다.

'약과롱' 만드는 순서로 익반죽, 약과, 초코가루 등 여러 재료를 맛보고 느꼈으며 가족에게 줄 약과롱도 열심히 만들었다. 유희실에서는 여러 전통 놀이인 '공기놀이' '사방치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등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편을 나눠 함께 놀며 즐기는 전통 놀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아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복도 입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는 추석이 너무 좋다"며 관심과 즐거움을 나타냈다. [푸른반 이진아 교사]

중계온마을센터의 하와이를 품다 행사장 모습



노원목이종합지원센터

'하와이를 품다'

31일, 중계온마을센터가 주최하는 '중계온마을축제, 하와이를 품다' 축제에 맞춰 하와이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중계온마을센터는 매년 전 세대가 즐기는 축제를 진행하는데 올해 특별히 '하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였다. 축제 프로그램은 훌라댄스 공연, 버스킹 공연 등의 흥겨운 볼거리와 하와이 꽃팔찌, 모루키링, 도어벨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각 층에서 펼쳐졌다.

참여한 지역 시민들은 "더운 날씨에 축제장에 꾸며진 하와이 분위기로 흥겨움과 시원함을 잠시 맛보았다"며 좋아했다. [김선화 특수교사]

보나 전통 민속놀이에서 만들기를 즐기고 있는 유아들.



상계5동어린이집

보나 전통 민속놀이

10일, 학부모 참여 수업으로 '보나 전통 민속놀이'를 하였다. 고유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각 코너별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민속놀이(활쏘기, 널뛰기, 딱지치기, 팽이놀이, 팔 주머니 던지기)와 밤카롱 만들기, 전통미술 놀이가 활발히 진행됐다. 전래동화 시간에는 학부모가 직접 나와 손 인형 놀이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유아들은 다양각색의 한복을 입고 자태를 뽐냈다. 전통민속놀이는 0세~ 만 5세까지 모두에게는 신명을 안겨 준 특별한 날로 새겨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서 명절을 실감했고 더불어 행복을 느낀 날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추석을 맞아 영유아들이 오란다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블리원어린이집

추석 행사

12일, 교사와 영유아 모두 한복을 입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추석에 맞게 잘 꾸며진 현관 입구, 포토존과 그네 놀이 등을 준비하였다.

행사는 포토존, 전통 놀이, 요리 활동 공간으로 진행되었다. 전통 놀이는 투호, 굴렁쇠,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아이들이 평소 접하지 않은 놀이감을 이용해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하였다. 학부모들이 오란다 만들기 요리에도 도움을 주셨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추석 명절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다. 추석 후에도 반별로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한 기쁜 순간을 나누며 행사의 시작과 결과까지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지도록 기획해 갈 예정이다. [행복한반 박서연 교사]

도봉숲속마을에서 열린 힐링프로그램의 내부 모습.



활계우리가족상담소

부부 힐링프로그램

가정폭력에 노출된 부부를 대상으로 7일 도봉숲속마을에서 부부 힐링프로그램을 가졌다. 부부 요가와 사진 치료로 당사자 및 부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신뢰감과 갈등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자리이다. 또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감 완화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공유하도록 된다.

참여자들은 "힐링 프로그램이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와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더 많은 부부에게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부부 힐링프로그램을 연 4회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은 상담사]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8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PayPal : kb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국외기부 /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아산사회복지재단	600만원(장학)	무 명	100만원(영보)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50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성서밀알선교회	105만원(운영)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삼일성서교회	일 반
0.8구좌 이은광	1구좌 황미숙	1구좌 한금순	1구좌 이사람 이성영 이우윤
1구좌 강애술 김세현 김유미 박재신 박향식 이민하 이신재 이화연 임찬웅 정희영 주영덕 최현정	2구좌 이윤서	성서선교회	2구좌 서병준
2구좌 김연정 박상수 신정섭 임수경	5구좌 정태리	2구좌 금춘성서교회	단체 및 기관
3구좌 손승현	교직원 및 가족	장자교회	4구좌 플랜팅시스
	3구좌 권오섭	5구좌 장자교회	
	13구좌 한진호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삼일성서교회	일 반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술 강옥경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솔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김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동완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성균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찬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웅 김하은 김하나 김현진 김희서 나선영 남범수 남승희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진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 용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환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혜영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유영원 유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진리 이재너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유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본 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허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엽 문윤순 이길순 이다윤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황영숙 좋은교회	2만원 박윤경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연신 이혜정 임동화 장연중 전계화 지중배 황미숙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김로경 김효선 박명규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연성희 오영미 이경민 이미영 이승민 이승진 이승찬 이윤서 이은영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윌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창호 함은애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전희문 최장규
도 안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진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 용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환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혜영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유영원 유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2만원 고난홍 고성호 박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소경숙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엄미자 오현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와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4만원 배정환 신은진 이은애 5만원 김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정균 이지은 최경환 최승희 표길홍 기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3만원 박윤경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연신 이혜정 임동화 장연중 전계화 지중배 황미숙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김로경 김효선 박명규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연성희 오영미 이경민 이미영 이승민 이승진 이승찬 이윤서 이은영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윌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창호 함은애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전희문 최장규
도 안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진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 용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환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혜영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유영원 유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2만원 고난홍 고성호 박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소경숙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엄미자 오현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와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6만원 정동주 8만원 박주은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류종주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기훈 함평대동교회	10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윤 유수연 윤혜진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도 안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진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 용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환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혜영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유영원 유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2만원 고난홍 고성호 박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소경숙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엄미자 오현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와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11만원 유선미 이은광 22만원 성낙표 100만원 이례장학 105만원 성서밀알선교회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윤 유수연 윤혜진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도 안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진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 용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환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혜영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유영원 유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2만원 고난홍 고성호 박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소경숙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엄미자 오현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와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선경 김은주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윤 유수연 윤혜진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기부자 명단

4만원 김덕원	1만5천원 정찬수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구광면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20만원 서문교회	3만원 왕순희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성서대학교교회	장자교회	10만원 서미혜
이상일 장정순	9천원 김은미 정갑순	4만원 권정숙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6만원 권순범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5만원 장자교회	30만원 박순정
7만원 임환석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주향교회	100만원 무 명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1만원 유병우	500만원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2만원 정우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김상은 김성은A 김성철 김애숙	중앙성서교회	단체 및 기관
문무열 박성환 박태용 배진형	김유미 김인영 김일선A 김일선B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혜련	최영란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원영희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김희자 김희현 박영숙 박영신	2만원 신영옥 강영애, 신한성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박태수	이준구, 안춘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최시람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방미경 서영우 서 훈 석경순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손원자 안봉숙 오종철 윤도진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주)에이스와식산업
11만원 최지은	윤재필 이경미 이무현 이봉호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도새기짚
12만원 김덕현 김용기 배민정	이소정 이영진 이정숙 이정자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이종욱 이주현 장기경 장진희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장홍림 조영희 최영태 최용석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의정부좋은나루교회
안정신 이한영	최인숙 하은희 한성실 한충현	15만원 이혜선	/주식회사 이수전기
20만원 김승욱 김정원 박 선 박태수	2만7천원 선종인	퇴계원제일교회	4만원 플랜팅시즈
정해덕 정취진	3만6천원 강미경 김민자 김이자 김춘환	1만원 유재란	5만원 다드림교회/본도시락 중계점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박 선 반해빈 반해성 유중엽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사랑샘교회/상일교회
35만원 최선희	이경신 조병하	평화교회	/예일에드컬/한일성서교회
66만6천원 강승태	4만5천원 박은경 유희창 임성일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향전교회
100만원 홍철자	5만4천원 김영현 김유미A 반세호 송재철	함평대동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이윤봉 최선희	1만원 김희경	/주)이레드&CO레디디자인
부설기관	6만3천원 김현석	화도드림교회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1만원 권순실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최미정	김원태 박세건 박은유 이병선	5만원 화도드림교회	/만나교회/미사목민교회
호한나	이은실 이정임 전영진 최강희	호성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1만원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수 변송이	10만8천원 박선하	일 반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안미희 유정현	18만원 박은오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평안교회(신병수)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21만6천원 정희전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20만원 (주)소원기건
6만원 장나혜	135만원 홍성개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30만원 한민제일교회
7만원 김선화	성서선교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40만원 두암산업(주)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2만원 금촌성서교회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50만원 동서환경(주)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3만원 푸른동산교회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100만원 세이해임학술정책재단
20만원 김신덕 차 건	5만원 동두천성서삼교회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현석	150만원 한국정책재단
35만원 오동준	월계성서교회	유화실 이관현 이민우 이시람	6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이성영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권선제일교회	세빛교회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소계(20240821~20240920)
1만원 이상규	5만원 세빛교회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실	48,055,660
5만원 권선제일교회	수원교회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누계(20240301~20240920)
동광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한춘경 황영수 위샬러듀	528,179,706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 김현진	어린이양교회	2만원 강명영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밀알교회	1만원 김정희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채균	
1만원 서효정	2만원 한지화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삼일성서교회	3만원 임윤창 어린이양교회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해란 한금순	7만원 이정선	허정안 홍춘호	
서문교회	일동성서교회	평화교회 행복한국교회	
1만원 강선에 박경자 윤인호	1만원 서미영 심미영	3만원 장문석	

한국성서대학교 9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1,000,000원)	
안명준(외래교수) 1,0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21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2,520,000원)	
7구좌 김선화(동문) / 2구좌 김의남(일반) 박문수(일반) 윤종찬(일반) 허성보(일반)	
1구좌 김은영(일반) 김하예(일반) 서미영(일반) 심미영(일반) 이은정(일반) 이유리(일반)	
일시납 누계(3.1~9.22) 181,766,061원 약정자 누계 (3.1~9.22) 133 구좌 / 14,760,000원	